

# 작년 출생아 33만 명 밀돌아 역대 최저

### 통계청, 인구동향및 출생·사망 통계(잠정) 발표

#### 합계출산율 OECD 유일 '0명대'...인구감소 빨라질 듯 "30~34세 女인구 감소...혼인 건수 7년째 뒷걸음 영향"

지난해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가입 인구 1명당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인구 감소 우려가 한층 더해졌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과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1년 전(35만 7800명)보다 3만 900명(-8.6%)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는 6.4명으로 내려앉았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수가 저조했던 원인에 대해 "출산을 하는 주 연령이 보통 30~34세 여성인데, 이 인구가 지난해 전년 대비 5.0% 감소한 영향이 있다"며 "혼인 건수가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와 관련이 높은 혼인 건수는 지난해 25만 7700건으로 1년 전보다 2.6% 감소했다. 2016년(-7.0%), 2017년(-6.1%)에 비해 감소 폭이 좁아진 영향에 출생아 수 감소 폭도 지난해 11.9%에서 -8.6%로 축소됐다. 반면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2000년 10.7% 수준에서 2015년 37.5%로 높아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1년 전(1.05명)보다 0.08명(-7.1%) 감소한 0.98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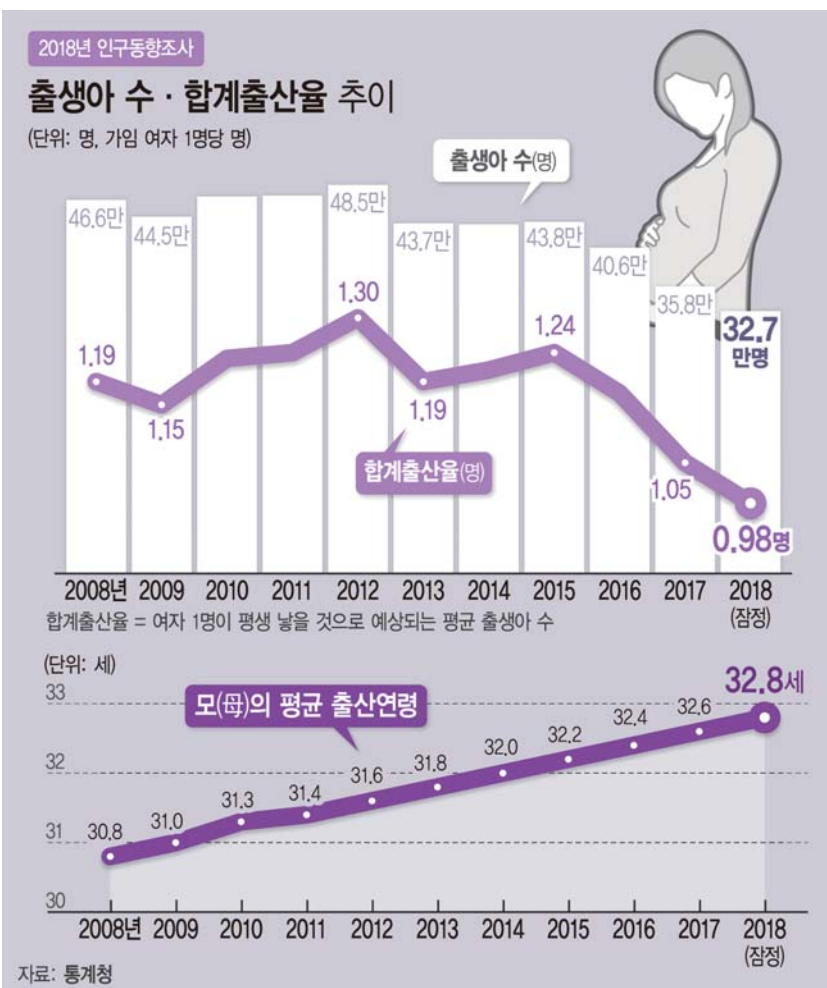
최저치를 찍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88명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1명을 밀돌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여성 한 명의 평생 가입 기간이 15~49세인데, 그 기간 사이에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기에 향후 인구 감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2016년 기준 1.68명이다.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4월부터 3개월째 지속됐다.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출산율)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 30대 초반이 91.4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1년 전보다는 6.3명(-6.0%) 감소했다. 30대 후반은 1년 전보다 2.0% 감소한 46.1명이었다.

20대의 경우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20대 초반의 출산율은 8.2명으로 1년 전보다 1.4명(-15.0%) 감소했고, 후반은 6.9명(-14.0%) 줄어든 41.0명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30대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을 많이 하는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처음으로 30대 후반보다 낮아졌다.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1년



전보다 0.2세 올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3년(27.55세)보다 5세가량 많아졌다.

평균적으로 첫째 아이는 31.9세에, 둘째 아이는 33.6세에, 셋째 아이는 35.1세에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은 1998년부터 지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5세 이상의 산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8%로 10년 전인 2009년(15.4%)의 약 2배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출생 성비는 105.4명으로 1년 전보다 0.9명 감소했다. 여자가 100명당 남자아이를 105.4명 낳는다는 뜻이다.

시·도 별로 보면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8만 8200명)였다. 서울특별시(5만 8000명), 경상남도(2만 3000명), 인천광역시(2만 1000명), 부산광역시(1만 9000명), 경상북도(1만 600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출생아 수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줄었다. 감소 폭은 대전광역시(-13.8%), 울산광역시(-13.1%) 등에서 높았다.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20세 세종이 1.57명으로 가장 높았다.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서울(0.76명), 부산(0.90명), 대전(0.95명), 광주광역시(0.97명), 대구광역시(0.99명) 등이었다.

## 취업·승진·신용등급 상승하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 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개인이 취업이나 승진에 성공하거나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에 고안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이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 요건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됐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이고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이 요구 요건이다.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은행은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와 이유를 유선, SMS 등으

로 통보해야 한다.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구체적인 행위유형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고객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진입규제 개편을 위해서는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다.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는 등 인가요건도 정비된다.

개정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실련, 재벌 토지자산 실태조사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오전 서울 중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5대 재벌 토지자산 실태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5대 재벌 소유 땅값이 10년간 43.6조로 2.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 작년 인구 자연증가 3만명 그쳐...12월엔 2년째 자연감소

### 사망자 30만명 육박 역대 최고...“고령 인구 사망 ↑”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생아 수와 달리 사망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 동향과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2만 2600명으로 1년 전보다 2500명(-1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만 1650명으로 전년 대비 300명(-1.3%) 줄었지만, 출생아 수보다

많았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900명만큼 자연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월 기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2017년 12월엔 출생아 수가 2만 5000명, 사망자 수가 2만 6900명을 기록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29만 8900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3400명(4.7%) 증가했다. 1983년 사망 원인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다.

하루 평균 819명이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늘어나 지난 2010년 700명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800명을 넘겼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조사사망률)은 5.8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4.6%) 증가했다. 이는 5.6명을 기록했던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4~2009년까지 5.0명을 유

지해 오던 조사사망률은 2010년부터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에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 분'은 지난해 2만 18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4000명(-61.3%) 대폭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며 감소 폭은 역대 최대치다. 하루 평균 896명이 태어나고 819명이 사망해 77명의 인구가 자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자연 증가분은 0.5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저위 출산율 기준으로 한국의 총인구가 2027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2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